

농림부,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 개정

-농가부채경감 신청 7월까지 2개월 연장

‘농가부채경감대책’에 의한 농업인들의 신청기간이 7월말까지로 연장됐다. 농림부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2개월 연장한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종전 총부채 ‘1억원 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금융자산 대상확정도 현재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내 직계 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는 심사기준을 ‘지원대상 금액’에서 ‘지원금액’으로 변경했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3개 읍·면 이상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

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 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신청 농업인의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를 ‘농업용상호금융 대체자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4년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지침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금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기일 도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 대출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그리고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은 5%를 적용한다.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축산단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중 ‘축산시설’은 제외 요청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 제정·공포한 악취방지법과 관련, 동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오는 8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은 지정악취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악취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압도니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 등 지정악취물질을 정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축산시설,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사료제조시설,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등 48개 시설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돼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엄격한 악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환경부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을 추진함에 따라 양돈협회는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시 축산시설 등은 시행규칙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환경부가 추진중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중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악취와 대별되는 양돈업에서 발생하는 인체 무해 냄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 제3조(악취배출시설) 별표2의 악취배출시설중 축산시설을 삭제하고, 인체에 무해한 냄새가 있는 축산업이 단지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는 제7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 3호 내용도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축산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시행과 관련해 강력히 협회의 입장을 피력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생산단계부터 항생제 사용감축 유도기로

-동물약품 종류 53종에서 30종 이하 감축 계획

농림부는 지난 6월 14일 허상만 장관 주재로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공급되는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농림부가 일관 관리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사용감축을 위해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종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내성이 강하거나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기간이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나 늘어나게 된다.

돼지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정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중 돼지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을 농가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돼지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새끼 돼지는 15kg 이하로 구분하고, 15kg 초과부터 30kg 이하까지는 새끼돼지, 31kg 초과부터 60kg 이하까지는 육성돈, 61kg 초과부터는 성돈으로 구분해, 15kg 새끼돼지의 농협조사 산지가격에 15kg을 초과하는 무게에 kg당 단가를 곱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새끼돼지의 기본가격을 무시하고 농협의 산지가격만 계산해 지급했었다. 한편 이는 지난 3월 양돈협회가 돼지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금 기준의 개정을 요청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양돈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다.

최근 1년간 배합사료 가격 37.1% 급등

-양돈농가 돼지 값 올랐어도 출하할 돼지 부족

배합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 5월을 기점으로 6월 환율인상 등의 이유로 인해 3%를 인상한데 이어 11월에는 국제곡물가 급상승, 해상운임비 폭등, 환율인상 등의 원인으로 5.2%가 상승된바 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1월에 전년 11월과 같은 이유로 사료가격을 9% 수준으로 대폭 올렸으며, 또한 3월에도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사료곡물값이 인상됨에 따라 9%를 인상했다. 한편 최근 6월 들어서도 양돈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합사료 값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평균 6.5%가 인상되어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무려 약 37.1%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6.5%의 사료값 인상은 갑작스럽게 인상된 것으로 그동안 양돈업계와 사료업계가 사료값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공동 노력을 펼치던 중 전격 실시된 터라 농가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사료업체들이 사료값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경영 합리화 등의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사료 원료비 인상분을 농가들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지역 한 양돈농가는 '지금 돼지가격이 높다고 하지만 작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산지에서 마땅히 출하할 돼지가 없는 등 속빈 강정'이라며, '이렇게 만회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료값이 계속 치솟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못잡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실제로 올해 5월 전국 13개 공판장의 1일 평균 비육돈 평균 경락두수는 4,484두로 2003년 동기 평균 5,040두에 비해 무려 11%가량이 줄어들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평균경락두수도 전년 동기보다 8%가 감소하는 등 산지에서의 출하물량 감소가 산지 돼지가격을 높게 형성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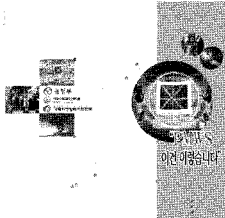
도축장, 부가세 비과세와 농사용 전기사용 허용 건의

HACCP 인증 시설 개보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가 부가세 비과세와 농사용 전기 사용 등 도축사업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축업계에 따르면 도축장 HACCP을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설 개보수 작업을 실시, 가동률 저조로 가뜰이나 어려운 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축협공판장의 부가세 비과세 제도를 일반 도축장으로 확대하고 HACCP 후 늘어난 전기료 사용체계를 농사용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관계자는 "부가세 비과세에 대해 일반 도축장과의

“PMWS”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

방역과 위생관리 철저, 믿을 수 있는 종돈장에서 돼지 입식 필수
밀사 방지 및 보온, 환기 등 유의



농림부는 최근 이유자돈에서 체중감소·쇠약·호흡곤란·설사·황달 등의 증상과 함께 5~15% 정도의 폐사를 동반하는

질병인 PMWS의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PMWS'와 관련한 홍보리후렛을 제작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해 농가들이 PMWS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본 리후렛에서는 PMWS가 돈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돈열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그밖에 PMWS의 개념과 발생 원인, 예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PMWS에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예방방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PMWS는 4~14주령의 이유자돈에서 체중감소·쇠약·호흡곤란·설사·황달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며, PMWS에 감염되면 5~15% 정도가 폐사하게 된다.

PMWS는 썬코바이러스(Porcine circovirus type 2 : PCV2)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밖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PS), 돼지파보바이러스(PPV), 유행성폐렴(Mycoplasma hyopneumoniae), 스트레스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썬코바이러스는 공기로 전파되거나, 돼지간의 접촉, 오염된 사료와 음수, 정액, 야생동물 및 설치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PMWS는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PMW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역과 위생관리 등에 철저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종돈장과 양돈장에서 돼지를 입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밀사방지에 힘쓰고, 보온이나 환기 등 사양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2차 감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질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평성 문제를 국세청과 재정부에 제기한 상태"라면서 "축산물을 도축한다는 견지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판장 경락가격 산출방식 변경

-등급판정소, 6월 1일부터 시행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6월 1일

부터 전국 13개 축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존의 산술평균치에서 가중평균치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판정소측은 "축산물등급판정 시행 초기부터 등급별 가격정보를 산술평균치로 제공해 오던 것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제공하는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하여 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농협 축산경제대표 송석우 대표 재선출



송석우 대표

통합농협 제2기 축산경제를 이끌 축산경제 대표이사에 송석우 현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추천됐으며, 6명의 이사조합장이 선출됐다.

지난 6월 2일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전국 축협조합장 1백50여명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에는 홍병천 흥천축협조합장, 안명수 광주광역시축협조합장, 배진수 진안무주축협조합장이 업종조합에서는 한영섭 부경양돈조합장, 백영주 공주나협조합장, 조상균 한국양봉조합장 등 6명이 선출됐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등급별 평균 가격을 가중 평균치로 적용해 오고 있다.

4월 돈열 항체양성률 평균 95.7%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발표한 올해 4월 검역원 및 각 시·도별 돈열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4월 한달간 돈열 항체양성률은 95.7%를 나타내 3월 95.6%, 2월 95.9%, 1월 95.0%와 비교해 꾸준한 항체양성률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66.7%까지 떨어졌다가 3월에는 95.8%로 상승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자돈의 항체양성률이 4월에는 100%를 나타내 양돈농가들이 자돈에 대해 돈열 예방접종을 더욱 철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95.3%, 번식돈 97.4%, 자돈 100%로 비육돈은 0.5% 포인트가 감소했으나, 번식돈은 1.8% 포인트가 증가, 자돈은 4.2% 포인트가 상승했다.

한편 4월중 전국에서 돈열 항체양성률 평균이 80% 미만으로 나타난 지역은 강원 속초시, 화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고령군으로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예방접종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행성 설사병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야

-분만 4~5주전 1차 접종, 2~3주 후 추가 접종해야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4월 가축전염병발생 월보에 의하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전국 5개 농장 1,320두의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는 39농가 8천755두로 전년 동기 누계 59농가 2만3천424두에 비하면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유행성 설사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유행성 설사병 발생농가 및 돼지 두수는 충남 2농가 540두, 전북 1농가 220두, 전남 1농가 60두, 경북 1농가 500두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생했던 제주도는 4월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행성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은 분만 4~5주전 1차 예방접종하고 2~3주 후 다시 접종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농장 소독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여름철 대비 축산시설 재해예방대책

금년 장마 6월 중순 시작해 7월 중순 종료 예상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금년 장마는 평년과 같이 6월 중순 후반에서 하순 전반에 시작해 7월 중순 종료가 예상되고, 강수량은 평년(451~894mm)과 비슷하겠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도 2~3개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 농가에서는 태풍·호우·폭염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대책에 의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전대책

-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보수, 축사 및 축산시설 배수로 정비
- 침수예상지역은 안전지대로 가축을 이동 조치
- 축사 환기시설 보수 및 보완
- 대규모 사육시설 및 축산시설은 정전에 대비 비상용 자가발전 설비마련
- 축사의 지붕과 벽을 미리 손질하여 비 피해 예방
- 가축 및 축사소독 방제장비 확보
- 축사주변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제거 및 소독

- 축산 오·폐수의 하천 등 방류행위 절대 금지

◎ 사후대책

- 축사 침수시 가축 및 이동가능 시설·장비 신속 대피
-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충분한 통풍·환기 및 수시 분뇨제거로 유해가스 발생방지, 적정습도 유지(40~70%)
- 전염성질병 개체 임상관찰 강화 및 발생시 가축방역관에 즉시 신고

전북 익산시 오제스키 발병

전북도는 돼지 집단사육지역인 익산시 왕궁축산단지에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 방역에 나섰다라고 지난 5월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이 지역 돼지 1만1천179마리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36마리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양성 반응을 보여 전부 도태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예전에 감염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오제스키 혈청검사를 실시해 도태함으로써 오제스키 근절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농림부, 10월부터 '쇠고기 이력제' 시범 실시

질병 및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적성이 신속 용이한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이 쇠고기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된다.

농림부는 최근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2006년까지 실시,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한 후 2008년까지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은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이

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 7월 정식출범

-농림부, 융자금 관리 객관성·투명성 확보 위해 설립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운용·관리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7월에 정식 출범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7일 농협중앙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관리단이 운영해온 융자금 대여와 회수업무를 새로 맡을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대한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농특회계 융자금을 받아 대출기관에 전달하는 국고용자 중간단계를 그동안 농협에서 대행해 왔으나 융자금을 대여 받는 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융자금 대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같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설립됐다. 관리단의 단장은 송제빈 전 농촌진흥청 기획관리관이 임명됐다.

'한국종돈수출협의회' 출범

국내의 우수한 종돈을 수출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한국종돈수출협의회가 구성됐다.

전국의 13개 종돈장 대표들은 지난 6월 9일 이같이 한국종돈수출협의회를 구성기로 합의하고 회장에 이병모 진왕종축 대표(본회 부회장), 부회장에 이경록 문경FINE 대표를 선임했다. 이날 대표들은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수출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 국내 종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본격적인 수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협의회는 필리핀 수출을 위해 현지 검역 담당자와 종돈장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종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10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종모돈 53마리를 기증해 중국에 무상기증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축산물 위생검사 국제 세미나 개최

농림부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축산물 위생검사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축검사규정과 검사관 및 보조원 자격업무, △소·돼지·닭 생체해체·검사 등 도축검사방법, △광우병검사 및 SRM 제거방법, △축산물 생산이력제 시행내용 및 추진방법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농림부, 덴마크 농수식품부 및 일본의 후생노동부 관계자들과 양돈기관 및 관련 단체,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유후 육성률 100% 달성을 위한 세미나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회장직대 진길부)는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충남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이유후 육성률 100% 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 및 도드람, 대전충남양돈조합의 조합원 농가들의 사례발표와 도드람조합 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의 PMWS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다비육종, 국내 첫 고객농장 HACCP 인증 수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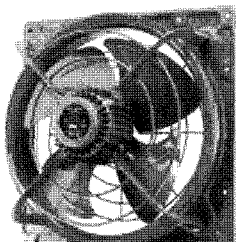


다비육종(대표 윤희진)은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이전시 미란다 호텔에서 종돈장이 아

닌 일반 비육농장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대축산, 신기농장, 푸른농장 등 「다비육종 고객농장 HACCP 인증 수여식」행사를 개최했다.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을 비롯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박종명 원장, 윤희진 다비육종 사장 등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다비육종은 HACCP 추진 동기 및 과정을 소개하고, HACCP인증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발표 등의 행사를 가졌다. 다비육종은 고객 농장에 대한 HACCP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돈 농가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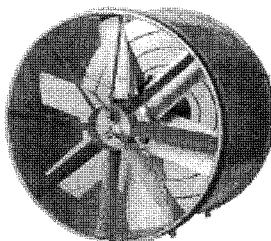
쾌적한 돈사 환경은 환풍기 전문 생산업체에 문의

ISO 9001 인증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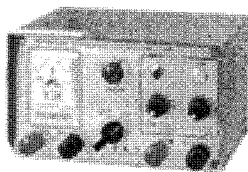
고압 배기팬

- 용도 : 양돈, 양계장, 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및 분진, 악취 배출에 적합하게 설계됨
- 특징 : 아연도 강판과 E.G.I 철판 위에 특수도장으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축사배기 전용 환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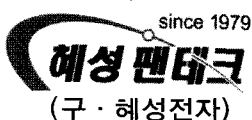
축사입기(A-550/600/700)

- 용도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축사내부로 송풍하는데 최적
 - DUCT를 연결하여 사용
 - 양돈, 양계장에 적합
 - 화훼, 원예, 비닐하우스
 - 기타



타이머(HT-45(TIMER))

- 용도
 - 저질한 실내환기에 알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지와 작동하게 하는 환풍기 전용타이머임.
 - 양돈, 양계장, 환기시스템 등에 사용
 - 기타 일반용도에도 사용가능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662번지
TEL : 031-981-8312(대표) FAX : 031-981-6128

www.HSfantech.com